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<b>보도자료</b>	2026. 4. 6.(월) 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		
<b>농업기술원</b>		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	현광철	☎ 760-7801
		인력육성팀장	김정훈	☎ 760-781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## 제주농업생태원 전통초가 지붕잇기 로 봄맞이 준비

- 묵은 지붕 걷고, 새로운 ‘새’ 로 지붕잇기...제주 고유 생활문화 보전 -
- 감귤 역사·문화 결합된 제주농업생태원 운영...문화해설도 제공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(소장 현광철)는 제주농업생태원 내 전통초가 지붕잇기 작업을 실시하며 봄맞이 준비에 나섰다.
- 지붕잇기는 비바람 등으로 훼손된 묵은 지붕을 걷어내고, 잘 말린 띠풀인 ‘새(제주 방언)’을 새로 덮는 작업이다.
- 이 풍습은 오래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제주 고유의 생활문화로, 뗏짚을 사용하는 타 지역과 달리 오름과 중산간 지역에서 자생하는 ‘새’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. ‘새’는 가을에 수확해 건조한 뒤, 매년 1월부터 4월 사이 지붕잇기에 사용된다.
- 지붕 재료로 쓰이는 ‘새’는 억새보다 가늘고 곧아 바람에 강하고 습기에 잘 견딘다. 지붕을 덮은 뒤에는 ‘새’로 엮은 집줄로 단단히 고정하는데, 이 집줄은 굵고 견고해 돌풍과 호우 등 제주 특유의 거친 기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.
- 그러나 전통초가의 감소로 지붕잇기 풍습 역시 점차 사라지고 있다. 현재는 성읍민속촌, 제주민속촌, 돌문화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.
- 제주농업생태원 내 전통초가는 제주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안

거리·밖거리 구조로 조성돼 있으며,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.

- 농업생태원(80,733㎡)은 감귤의 역사와 제주 문화를 결합한 복합 체험 공간으로, 금물과원과 감귤홍보관, 감귤품종 전시관을 비롯해 감귤숲길과 녹차밭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. 또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는 약 1시간 코스의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- 입장은 무료이며, 해설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(☎760-7811)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.
- 김정훈 인력육성팀장은 “지붕잇기 작업은 제주 전통초가 문화를 유지·전승하는 중요한 과정”이라며 “농업생태원을 통해 전통과 농업자원을 연계해 제주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,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·보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